

DIOCESE OF SAITAMA

TOKIWA 6-4-12, Urawa-ku, 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 048-831-3150  
FAX: 048-824-3532



カトリックさいたま教区

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330-0061  
TEL: 048-831-3150  
FAX: 048-824-3532

## <새로운 행보를 위한 지침>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복음 15:9)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미사감사기도 3 양식중)

2023년 2월 17일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 사이타마 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20년 봄,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제1파 중에, 공개 주일미사를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공개 미사의 재개가 실현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여전히 감염 확대의 여덟 번째 파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긴 기간, 교구에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23차에 걸친 「대응」에 대해, 진지하게 응해 주신 것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이 3년간, 주교인 제 자신이 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상징외의 은혜」인 「특별한 깨달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깨달음 안에, 사이타마 교구에서 사는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닷길의 이정표」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함께 복음을 사는 『국적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은 교회』로

사이타마 교구에 있는 교회, 그것은 「일본땅에 있어서의 하느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인 백성은 30여년 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필리핀, 브라질, 페루 등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를 새롭게 맞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다행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교회(대다수의 교회가 해당됩니다)에서는 미사의 언어가 일본어인지 외국어인지에 관계없이 공동체 전체로서 주일미사를 거행할 뿐만이 아니라, 외국 국적 분들이 모국에서 소중히 되어 있던 축제 등을 공동체 전체가 거행하고 있는 곳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신도도 외국국적 신도의 수도 모두 다수인 몇몇 교회에서는(그 수는 적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주일의 미사는 거의 언어별로 나뉘어 행해져 바꿔 말하면, 그 소교구는 아직도 「언어별 공동체가 단순히 모인 것(교제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사이타마

교구는 이제 한 걸음 나아가 「국적, 말, 자란 문화의 차이 등을 넘어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사는 교회」를 목표로 하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어 미사는 지금까지 모국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교제의 장소였던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만,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모국어 신도들의 단순히 모인 것(교제소대)이 되면 그 교제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한 걸음을 함께 밟지 않겠습니까?

바오로의 유명한 다음 말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갈라 3:26-28)

### 거기서, 우선, 사제·조제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고 「풍요로운 다양성을 유지하며 교류하는, 단순히 모인 것(교제소대)가 아닌 다국적 교회」를 목표로 하는 절호의 기회로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코로나 후의 행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의 미사(주님의 성체와 말씀)를 중심으로, 교회의 성사를 받아, 기도하는 자세를 항상 살리면서, 여러분과 힘을 합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선, 사제·부제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제·부제 여러분은 반드시 응해주시리라고 믿고, 모든 신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외국적의 형제 자매 여러분에 관해서는, 일본에 오랫동안 계셨어도, 때로는, 모국어미사에 참여하고, 모국어의 설교를 듣고, 같은 모국어의 형제 자매만으로 모인다는 것은 지금도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 미사, 성사, 교리, 기도 모임 등에 대해서, 부활절 부근부터 얼마간 「시험기간」을 마련해, 아울러 발표하는 「제 24 차 대응」에 따라 진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정 등 있으면 그때마다 수정하면서 「새로운 방침」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 모든 형제 자매와 「사이타마 교구의기도」를 함께

사이타마 교구에서는, 교구 대회나 사목자대회, 중요한 회의나 모임에서, 언제나 「사이타마 교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며, 그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왔습니다. 교구 창립으로부터 올해로 84년째를 맞이한 지금, 사이타마 교구는 「풍부한 다양성」으로 축복받은 교구로서, 새로운 결의로 걷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말미에 첨부하니, 소교구의 모임 등 에서도 꼭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이야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지금코로나 19의 팬데믹에 더하여,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의 나라를 침공한다는 악몽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겹쳐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모든 형제 자매에게 평화로운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겠습니다. 시련의 때는 언제나 은혜의 때이기도 한 것을 마음에 새겨,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바라며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 부 1: 사이타마 교구의 기도

いつくしみ深い父よ。一粒の麦として地に落ちたキリシタン殉教者の血と共に福音の種がまかれ、歩く宣教師によって、さいたま教区は開拓されました。「ヨハネ 12-2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 순교자의 피와 함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걷는 선교사에 의해 사이타마 교구는 개척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24)

これまで多くのの人々の靈的、物的援助によって、教区創立以来 84 年を経た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豊かさの中に心の飢えを感じる現代人の中であって福音の担い手として召された私たちは、まず自らを刷新し、「古い人」を脱ぎすて、福音の力によって「キリストの弟子」として生きる決意を新たに致します。「エフェソ 4-23」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물질 원조에 의해, 교구 창립 이래 84 년이 지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성함 속에 마음의 굶주림을 느끼는 현대인 가운데서 복음의 담당자로 부름 받은 우리는 우선 스스로를 쇄신하고 '오래된 사람'을 벗고 복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결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에페소 4:23)

父よ。 私たちを隔ての壁をとりこわす人、不正にはさからいの印にして下さい。

「エフェソ 2-14、ルカ 2-35」

아버지. 우리를 분리의 벽을 부수는 사람, 부정에는 그에 반하는 증거로 하여 주십시오.

(에페소 2:14, 루가 2:35)

一つのパンを分かち合う私たちが、貧しいようで多くの人を豊かにさせ、何も持たないようで、あらゆるものを所有する者となるようにして下さい。「I コリ 10-17、II コリ 6-10」

하나의 빵을 나누는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I 코린토 10:17, II 코린토 6:10)

そして、天の国のものであるため、いつも心の貧しい人である恵みをお与え下さい。「マタイ 5-3」

主キリストによって、アーメン

그리고 하늘나라의 것인,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마태오 5:3)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읍니다. 아멘

※ 이 기도는 우라와 교구 창립 50 주년 때 작성된 것입니다. 4 행째, 교구 창립 이래의 햇수는 매년, 연수를 늘려 주세요. 2022 년-83 년, 2023 년-84 년, 2024 년-85 년, 2025 년-86 년

부 2 · 키류 · 성 클라라 수녀회기도의 고리. 수녀님들이 사이타마 교구의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여정(인연)」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우리도 「기도의 여정」을 합시다.